"케쉐트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게 하소서"

(창세기 9:8-17)

인류의 죄로 인해 공의의 하나님은 비의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기간 동안 내렸던 비는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아부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하는 하나님의 눈물과도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식구와 생명체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대형 방주형 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이 거대한 방주를 짓게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작은 키(핸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과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창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 천장 위에 작은 문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노아의 방주와 모든 가정의 방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변을 절대 돌아보지 말고 항상 열려 있는 하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382일 동안 방주 안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항해를 하다가 소망의 항구인 '아라랏 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정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축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살펴보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아라랏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노아와 그의 가정의 심정인 것입니다. 물론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쓸려 내려간 것에 비해 비록 긴 여정의 방주 안에서의 삶이었지만 구원 받아 살아났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가능해 보이지 않음에 많은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런 번성의 축복의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7-28)" 에덴동산은 모든 것이 다 충만한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맨손으로 서 있는 노아와 그의 가정에게 아라랏산의 정상은 말 그대로 완전 무의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8명의 식구가 인류 구원과 다스림을 위해 반성하는 꿈과 비전을 같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런 노아의 가정과 상황을 한 번 느끼면서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지상명령은 얼마나 가능하고 편안한 상황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가정에 '케쉐트의 언약과 약속'의 복을 증거로 보여 주십니다. 케쉐트'란 무지개를 말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케쉐트'라는 단어의 뜻은 궁수의 '활(Bow)'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란 케쉐트는 마치 궁수의 '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무지개'를 'Rainbow'라고 말을 하는데, 'Rain(비)'이란 단어와 'Bow(활)'이란 합성어 단어인 것입니다. 즉 '비의 심판 속에서의 활의 언약'을 Rainbow라는 것입니다. 이 활의 모양은 땅을 향해 있지 않고 오로지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비로 절대로 심판을 하지 않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의지가 있는 약속의 말씀인것이죠. 하나님은 이 '케쉐트'의 약속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고 흘리신 언약의 피와 살을 찢으심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우리 교회 근처에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향해 노방전도로 나아가는 전도 주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아라랏산에서 오직 8명의 노아의 가정이 다시 시작한 그 구원의 첫걸음처럼, 오직 무지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120문도가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증거의 역사가 우리 뉴장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새롭게 집필하시고 역사하시는 새 케쉐트의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모든 가정과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2025년 표어

"사랑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12)

사랑의 5대강령: 하나님 사랑, 교회사랑, 다음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일반집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후 12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러브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중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새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유 치 부		청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 스 패 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 어 회 중	폴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티모시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사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가 족 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어사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방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비 기독교TV(타임워너 케이블 채널1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본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5년 6월 1일

1부 예배 8:00am | **2부 예배** 10:00am

드림 워십 인도: 이재환 목사 | 글로리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19번 "시편(Psalms) 32편"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Creed'
찬송 Hymn	새39장(통39)"주 은혜를 받으려" 'We Gather Together to Ask the Lord's Blessing'
기도 Prayer	박상우 장로 (Elder Sang Woo Park)
성경봉독 Scripture	신명기(Deuteronomy) 8:1-3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나의생명드리니"(1,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여호와는 위대하다"
설교 Preaching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이유"** 'Why God Leads Us Through the Wilderness' 김학진 목사
*찬송 Hymn	새202장(통241)"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I am so Glad that Our Father in Heaven'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3부 예배 12:00pm

블레싱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기도	김재연 집사
공동체 소식	영상
성경봉독	히브리서 13:1-7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설교	**"주의자녀로 산다는 것은"** 김성준 목사
찬양	"주의자녀로산다는것은"
축도	김성준 목사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